

# ‘가을잔치’ 티켓 예약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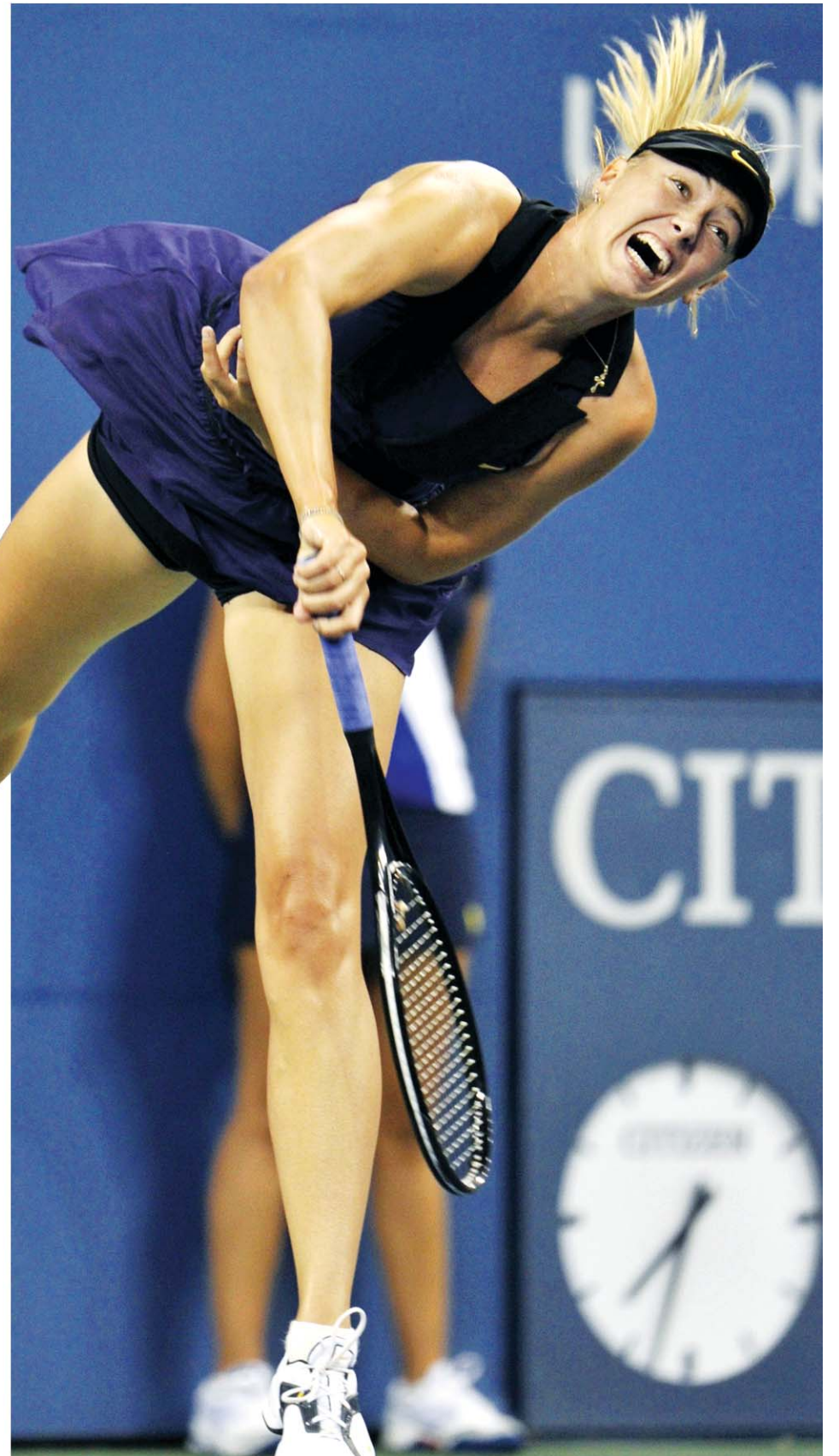
SK-삼성-두산-롯데 사실상 4강구도 확정... 포스트시즌 채비

롯데가 2일 KIA를 물리치고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막차 티켓을 사실상 거머쥐면서 가을잔치에 출전할 4팀이 결정됐다. 한국시리즈 직행을 노리는 선두 SK와 2위와 3위를 굳힌 삼성과 두산, 롯데가 패권을 놓고 다툰다. 롯데가 치명적인 연패에 빠지지 않고 KIA가 나머지 경기에서 기적적인 연승을 거두지 않는 이상 순위는 이대로 끝난다. 삼성이 SK를 3.5게임차로 추격해 아직 1위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네 팀이 가을잔치에서 만나기는 2008년에 이어 2년 만이다. 통산 세 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에 도전하는 SK는 공수의 짜임새, 경험에서 가장 앞선다. 부상으로 작년 한국시리즈를 건너뛰었던 에이스 김광현과 전력의 절반이라는 박경완이 견제하다. 삼성은 강력한 불펜이 돋보이고 팀 홈런 2위와 1위인 두산(132개)과 롯데(170개)는 화끈한 방망이가 전매특허다. 삼성과 2위 경쟁에서 밀려난 두산은 일찌감치 포스트시즌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롯데도 KIA를 완전히 따돌린 뒤 전력 재충전에 들어갔다. 두산과 준플레이오프를 대비할 참이다.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는 5전3선승제로 잔여경기가 끝나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시작된다. 대망의 한국시리즈는 7전4선승제로 치러진다. 단기전 승부를 앞두고 각 팀도 히트카드 준비에 열을 올린다. 삼성에서는 불펜 층을 더 두텁게 하고자 베테랑 사이드와 권오준을 준비하고 있다. 2005년과 2006년 삼성이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른 데 큰 몫을 담당했던 권오준은 어깨

통증을 털어내고 1군 등판을 앞두고 있다. 롯데도 ‘해결사’ 홍성흔의 복귀를 손꼽아 기다린다. 지난달 15일 KIA와 경기에서 윤석민의 공에 맞아 왼쪽 손을 다쳤던 홍성흔은 2일 “아직 손에 완전히 힘을 줄 수 없어 방망이를 휘 수는 없지만 포스트시즌 전까지는 완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광현(15승)-카도쿠라 켄(14승) 원투펀치가 강한 SK는 외국인 투수 게리 클로버의 부활을 기대하고 20홈런 타자가 최대 5명까지 탄생할 수 있는 두산은 특유의 기동력과 장타력을 조화롭게 이루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사라의 힘 러시아의 마리아 샤라포바가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에서 체코의 이베타 베네소바에게 강력한 서브를 넣고 있다. 샤라포바는 베네소바를 2-0으로 가볍게 물리치고 3회전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 허정무 K리그 복귀전

6강 PO진출 사활건 인천 사령탑으로  
오늘 부산 황선홍 감독과 ‘사제대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쾌거를 일궈냈던 허정무(55) 감독이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사활을 건 인천 유나이티드의 ‘특급 소방수’로 첫 결음을 내린다. 신임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인천은 4일 오후 8시 인천월드컵경기장에서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는 부산 아이파크와 쏘나타 K-리그 2010 20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이번 경기는 대표팀 사령탑을 끝내고 3년 만에 K-리그로 돌아온 허정무 감독의 복귀전이자 공교롭게도 전남 드래곤즈 감독 시절 코치로 한술밥을 먹었던 황선홍 감독과 ‘사제 대결’로 눈길을 끈다.

황선홍 감독은 허 감독이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2년 동안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을 때도 주전 공격수를 맡아 ‘사제의 장’을 맺었던 남다른 인연이 있다. 허정무 감독은 2007년 FA컵 우승을 마지막으로 대표팀 사령탑에 뛴 허정무를 떠났고, 황선홍 감독 역시 전남을 떠나 부산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각자의 길을 걸었다. 공교롭게도 허 감독이 K-리그에 복귀하자마자 첫 상대팀의 사령탑이 황 감독이어서 팬들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인천과 부산은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공통 목표를 향해 나란히 경쟁하고 있어 양보할 수 없는 한판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허 감독의 1차 과제는 연패 탈출이다. 인천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최근 5연패를 당하며 6승1무10패(승점 19)로 10위에 머물며 한자릿수 순위에서 벗어났고, 6위 울산(승점 29)과 승점차도 10점으로 벌어져 6강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 역시 멀어지는 형국이다. 허 감독으로선 연패 탈출과 승점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이에 맞서는 승점 26점의 부산도 7월 이후 2승2무3패로 주춤하며 8위로 떨어진 상태라 6강 재진입이 당면 과제다. ‘사제의 장’을 잠시 접고 냉정한 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는 분위기지만 이정화와 박진섭, 김응진 등 주전진 선수들이 경고누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게 아쉽기만 하다. /연합뉴스

한편 첫 정규리그 선두를 잡은 성남은 4연패에 빠진 ‘꼴찌’ 대구를 상대로 ‘1위 굴리기’를 노리는 가운데 골 득실에서 성남에 선두를 내준 2위 제주는 6위 울산을 상대로 선두 재탈환을 노린다. 제주는 골잡이 김은중이 경구 누적으로 빠졌고, 울산도 주요 득점원인 오르티고사가 경구누적으로 출전할 수 없어 나란히 약점을 안고 맞붙게 됐다. 이밖에 ‘윤성호 효과’를 톡톡히 보며 끝판에서 7위까지 오른 수원, 최근 상승세로 돌아선 강원과 만나고, 3위 서울은 비록 별로 빙가다 감독이 퇴장으로 벤치를 지킬 수 없지만 최성국이 빠진 13위 광주를 상대로 내심 선두 복귀를 노린다. /연합뉴스

## 추신수 원맨쇼 한국양궁, 약체 일본에 졌다

16호 홈런 포함 5타점 폭발

‘추추 트레인’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11일 만에 시즌 16호 홈런포를 터뜨리며 팀의 역전승에 앞장섰다. 추신수는 3일(한국시간) 미국 시애틀 세이프코필드에서 계속된 미국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와 방문경기에 3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장해 4-3으로 앞선 9회초 2점 홈런을 쏘아 올렸다. 지난달 23일 이후 11일 만에 폭발한 홈런이다. 추신수는 앞선 6회에도 동점 3타점 2루타를 터뜨리고 역전 득점을 올리는 등 팀이 뽑아낸 6점 모두에 관여하며 역전승의 일등 공신이 됐다. 시즌 16호 홈런을 작성한 추신수는 2년 연속 20(홈런)>20(도루) 클럽 가입에 한 걸음 다가섰다. /연합뉴스

월드컵 男단체전 결승 좌절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한국 남자양궁 대표팀이 국제양궁연맹(FITA) 4차 월드컵에서 일본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한국은 3일 중국 상하이 유안스 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남자부 단체전 준결승에서 일본에 216-224로 지면서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한국은 인도에 214-222로 패한 인도와 4일 동메달을 놓고 다투게 됐다. 일본은 국제 대회에서 두각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팀으로 현재 FITA 랭킹도 한국(2위)보다 5계단 아래인 7위다. 대한양궁협회에 따르면 한국 남자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와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을 통틀어 국제대회에

서 일본에 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남자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최고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한일전 패배는 충격적이다. 대표팀은 지난 1일 단체전 예선에서 2043점을 쏘아 세계기록을 경신했으며 전날 개인전에서도 임동현(청주시청)과 이창환(두산중공업)이 결승에 진출해 금메달과 은메달을 확보했다. 이날 경기에는 개인전 예선 세계신기록을 세운 임동현, 고교공사 김우진(충북체고), 베테랑 오진혁(농수산 효소공)이 팀을 꾸렸다. 지난 3차 월드컵에서는 임동현과 이창환, 오진혁이 호흡을 맞췄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최상 조광을 찾기 위해 김우진이 이창환 대신 투입됐다. /연합뉴스

## 생활 게시판

화측

▲윤종영·최수희씨 장남 현석군 김기성·김옥심씨 장녀 혜련양=5일(일) 오후 2시 서강대학교 이나시오성당.  
 ▲하원만(서울 현대백화점 고문)·김정일씨 장남 상욱(드림성형외과 강남점 의사)군 조운식(변호사)·양신숙씨 장녀 소원양=4일(토) 오후 1시30분 서울 JW메리어트호텔 5층(그랜드볼룸)  
 ▲김영수(대진종합건설(주) 회장)·안미자씨 장남 재현(대진종합건설(주) 전무이사) 반효식·김대숙씨 차녀 소정(법무법인 한로 변호사)양=4일(토) 낮 12시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신라호텔(DY-

NASTY홀)  
 ▲정정아씨 장남 수혁군 정혁·이수인씨 장녀 은양=5일(일) 오후 1시 서강대학교 공자가 컨벤션.  
 부음  
 ▲조유강씨 별세 명길만씨 모친상 박진수(대화강정평가법인 전 호남지사장)씨 빙모상=발인 5일(일) 광주시 서구 삼촌동 한국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380-3041.  
 ▲김연순씨 별세 안재오(광주시체육회 경기팀 계장·광주일보 독자위원)·명환·숙희·선미씨 모친상=발인 4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최소임씨 별세 광주현·보현·충현·복덕·봉덕씨 모친상=발인 4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謹 故 人 之 冥 福 을 빕니다 弔

故 이순자 님(여/62세)  
 子: 권상열, 흥빈  
 女/ 婦: 권은화·강성화, 은화·정광호  
 •호실: 101호 •발인: 9월 5일 •장지: 영락공원

故 박형진 님(여/86세)  
 子/子婦: 이일래·박순아, 봉래, 양래, 신영자  
 원래·류보순  
 女/ 婦: 이일래·주갑식·이자·강영숙·막래·고정대  
 •호실: 401호 •발인: 9월 3일 •장지: 장충동

故 박은영 님(여/40세)  
 夫: 박민동  
 •호실: 402호 •발인: 9월 4일 •장지: 영락공원

故 주민영 님(남/52세)  
 夫人: 박원순  
 子: 주현호  
 •호실: 102호 •발인: 9월 4일 •장지: 영락공원

마음까지 편안함 - 금 호 장례식장 ☎ 062)227-4000

謹 故 人 之 冥 福 을 빕니다 弔

▲박현철·광표·남표씨 부친상 미망인 최금자 씨  
 발인: 9월 4일(토) 09시00분 장지: 담양천주교묘역 연락처: 250-4407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 (062)250-4455

무인텔

1객실 1투차  
평동무인텔!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www.feelmotel.kr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테마룸

썬 뉴메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름  
재부라 플라워 피스 완기둥 네이처